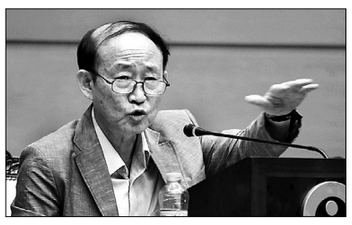
“선학원 사태 해결, 분원장에 달려있다”

김광식 교수, ‘선학원’ 워크숍서



“선학원은 선방수좌 스님들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근간한 평의원회 조직이 있었다. 당시 이사회를 견제한 평의원회와 같이 분원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학원 설립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7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 위>는 ‘선학원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서 선학원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양측의 의식변화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선학원은 수좌 보호와 선수행 진작이라는 본래 설립 취지가 있다. 하지만 1962년 통합종단 이후 선학원은 재산관리에만 유의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분원의 연합체 성격”이라며 “이런 가운데 수좌, 평의원회의 퇴진 등이 노정됐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1934년부터 있었던 수좌들의 협의체로 선학원 예산 결산 권한 등을 갖고 있었다. 김 교수는 “이후 1969년 초반부터 정체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선학원의 독자성은 20여년간 계속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선학원 분원장, 소속 승려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교섭이 추진돼야 한다”며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정체성과 배치되지 않는 차원에서 양측의 접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학원이 설립 취지에 맞는 정체성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날 ‘재단법인의 운영 원리와 방법, 그리고 관련법 분석’을 발표한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률적 제재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분원장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사회에 대해 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 조계종도 법적 독립실체로 인정하고 공존의 자세를 갖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신도 내홍 수습, 새 국면 맞아

봉은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7월 25일 전격 ‘해체’

봉은사 중창불사 과정 갈등 발발
봉은사 측 17일 신도회칙 개정
운동본부 “도량 소란케해” 참회
봉은사 신도회 “복권 논의 중”

2014년 봉은사 종루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반발하며 봉은사 신도회 측과 갈등을 빚은 ‘봉은사 신도회 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봉은사운동본부)’가 대중 앞에 참회하고 전격 해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년 간 지속된 봉은사 신도회 내홍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옥곤 봉은사운동본부 대표는 7월 25일 본지와 통화서 “2년 전 종루를 전통문화체험관으로 개축한단 소식에 크게 반발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중 내 신도회 위치가 스님들에게 종속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7월 17일 임시총회서 신도회칙이 개정되며 신도회의 자주독립성이 보장됐다고 판단, 봉은사운동본부를 해체하고 신도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과거 신도회는 담당 지도법사에게 모든 결정권이 일임돼 있던 반면, 회칙 개정으로 신도회가 행정 운영상 결정권을 갖게 됐다. 또한 신도회장 및 부회장 선출도 주지 스님의 임명 형태서 인선위원회를 통한 선출제로 변경됐다.

최 대표는 “임시총회 전까지 주지 원명 스님과 봉은사운동본부는 4차례 만남을 가졌다. 원명 스님이 신도회의 독자적 활동을 약속하셨다”며 “앞으로 봉은사 및 신도회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봉은사운동본부의 즉각적인 신도회 복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옥곤 대표 등 봉은사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신도회칙 위반으로 제명되거나 징계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원표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은 “최옥곤 대표 등이 발표한 참회문서 지난 날 얘기를 거론하는 등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참회 자체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8월 초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복권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봉은사와 신도회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봉은사 측은 회칙 개정 등을 통해 신도회의 자주독립성을 부여한 만큼, 내부적 갈등도 자율적 해결에 맡길 전망이다.

봉은사 관계자는 “주지(원명) 스님께서 신도회의 자립 · 독립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셨다”며 “봉은사운동본부 측이 참회문을 발표하고 신도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해서도 신도회 내부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봉은사운동본부는 7월 24일 봉은사 일요법회서 대중 앞에 삼배를 올리고 참회문을 발표했다.

최옥곤 대표 등은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종루 개축 문제와 관련해선 “사찰 내부 문제를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시켰단 자체가 비불교적이었다”며 “저희들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어 세속 법에 호소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청정도량인 봉은사를 소란케 했다”고 참회했다.

이어 “그동안 봉은사 신도들의 기도 신행 생활에 불편을 끼쳤으며, 승가와 재가 간 화합에 역행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며 “이 시간 이후 봉은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적 해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봉은사 신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뤄왔던 봉사활동도 정상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표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직선제 선거참여 ‘승랍 10년 · 법계 중덕’ 이상

26일 직선제특위 기준 설정

비구 · 비구니 평등참여 보장
선거인단 8300여명 예정
제도 보완 공청회 열기로



조계종 직선제 특위는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의 윤곽이 일부 드러났다. 승랍 10년 이상, 법계 중덕(비구니 법계 정덕) 이상의 일정 수준 소양을 갖춘 자면 비구 · 비구니 누구나 선거에 참여가능하다.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는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직선제 선거인단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마련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고심어린 논의가 이어졌다. 직선제 도입 여론이 높았던 대중공사에서도 선거인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출가자만의 선거가 72%, 재가자를 포함한 선거가 26%의 지지를 받은 바 있었으며, 출가자만의 선거는 세부적으로 승랍 10년 이상이 23%, 20년 이상이 23%, 30년 이상이 9%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출가자만의 선거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대부분의 특위 스님들은 기준 하향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선광 스님은 “사회에서 선거인 기준 연령을 낮추고는 있지만 승단은 승단만의 문화가 있다”며 “종단 사정과 후보자에 대한 기본지식 등이 축적되려면 승려가 된지 1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여기에 법계 기준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계종의 경우 91년 이후 출가자부터는 승랍 기준에 맞춰 승가고시를 치루고 합격한 이에 법계를 발급하고 있다. 승가고시에서 면접과 수행이력 평가 등 검증이 진행되며 종단 공직 취임시 법계에 기준하도록 하고 있다.

정산 스님은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총회 구성원 자격도 산중총회법에 중덕 이상으로 명시돼있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고려 했을때 중덕 법계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공사에서 승랍 10년과 비슷한 지지를 받은 승랍 20년 이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직선제 특위의 기준안에 따르면 직선제 도입시 선거인은 8,3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교구별 법계인원 현황(7월 19일자)에 따르면 중덕 이상 비구스님은 4117명, 정덕 이상 비구니 스님은 4210명이다. 승랍 10년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견덕(계덕) 법계 인원은 2905명에 불과하다. 조계종 승단은 승랍 30년 이상에 부여되는 종사(명덕) 품계 만도 4800여명인 역피라미드 구조다.

특위는 차기 회의에서 조계종 총무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법계 중덕 이상의 자격 도입시 변경해야 하는 제도와 법령에 대해 보고 받고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의 선거 참여에 대해서는 특위위원 전원이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 태관 스님은 “대중들이 지적한 그동안의 선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특위 활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나가겠다”며 “지난 회의에서 결원된 위원 위촉을 비롯해, 공청회, 워크샵 등을 열고 의견수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차 회의는 8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제 7회 천태 어린이 · 청소년 사생대회

종합 대상에 류영민 · 이도현 학생…총 38명 수상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7월 24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서 ‘제7회 천태 어린이 ·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합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어린이 부문에 류영민(대구 대성사, 대명초 1) · 청소년 부문에 이도현(청주 명장사, 원봉중 1) 학생이 수상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백일장 어린이 부문 금상을 수상한 서혜진(서울 관문사, 방산초 3) · 청소년 부문 유지연(상진초 6) 학생과 사생대회 어린이 부문 금상 최가희(김천 금강사, 금릉초 4) · 청소년 부문 김세현(김천 금강사, 김천여중 1) 학생에게도 각각 상금 30만원이 수여됐다.

백일장 어린이 부문 은상에는 이수현(서울 삼룡사, 숭인초 4) · 청소년 부문 양다혜(단양초 6) 학생과 사생대회 어린이 부문 은상에는 김주영(창원 원흥사, 외동초 4) · 청소년 부문 양은정(함안 청안사, 가야초 5)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도 백일장 어린이 부문 동상에는 김도현(창원 원흥사, 명서초 3) · 청소년 부문 박건호(영춘지회, 영춘중 3) 학생과 사생대회 어린이 부문 동상은 이동혁(구리 금성사, 부양초 4) · 청소년 부문 장현영(단양 중학교, 단양중 2) 학생 등이 받았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구인사서 진행되는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통해 천태 학생들이 평소 생각한 꿈을 부처님 품안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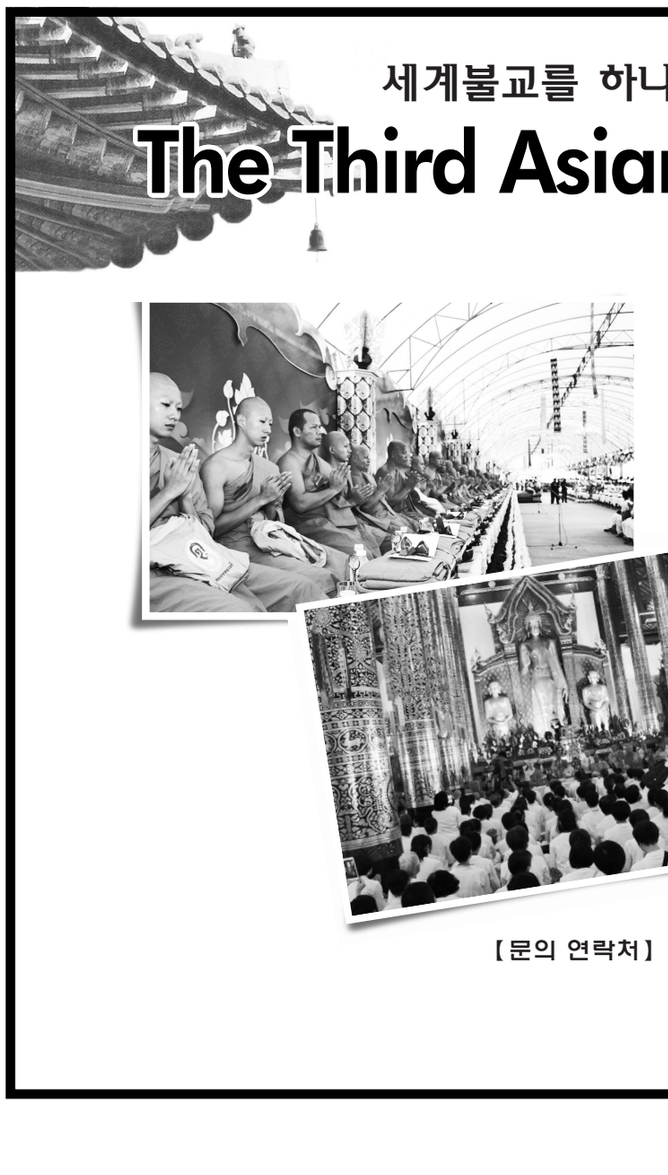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사 불상 훼손한 40대 남성 검거

조계사에서 불상과 코끼리상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김모(40)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조계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7월 10일 조계사에서 ‘미소불상’을 바닥에 던져 흠집을 내고 코끼리상의 발목을 부러뜨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사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김씨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불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

The Third Asian Buddhisi Cuiure Feslival 2016

제3차 대회

중국 광동성 육조사 주관으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40여 개국 5천여 신도, 불교계 대표와 아시아 지역 승왕님을 모시고 한국 대표단 천태종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여, 7월 17부터 19일까지 성공리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 한국불교(조계종)의 증흥조 이신 육조 혜능선사님의 기일을 맞아, 9월 2일(금요일)부터 4박 5일 광동성 육조사 행사 참여와 제17회 전법기행을 개최합니다.

① 전 법 : 조동종 26세, 위양종 11세, 보살계, 아사리 (가사, 장삼, 바루, 승복, 신발, 전법증서 제공)

② 사찰순례 : 광효사, 육조혜능선사(머리카락을 모신탑) 출가사찰, 대불사, 달마사(달마대사 중국 입경시 거하시던) 등 중국 최대 불교용품 도매시장 쇼핑

※ 전법제자의 특전 : 사단법인 세계불교 문화교류연맹 정회원 자격
· 중국 육조사 산하 22개 대형 사찰에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유수의 대학교와 협력된 승가과정 4년제 (2년 육조사 수행과정,대학 2년) 장학과정으로 유학 (육조사 내 200여명 상시 거하며,수행 할 수 있는 시설 완비)
· 전법제자 연락 바랍니다.(전법자 수첩 제작 및 회원증 발급 준비 중)

■ 사)세계불교 문화교류 연맹 제2기 임원진 개편 합니다.
각 지역 지부장
각분과 위원장, 위원
임원진, 총재단, 고문, 자문.이사진, 등 기타.
뜻을 함께하여 세계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부족함을 채워주는 형제로써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 사단법인 세계불교 문화교류연맹
(본부는 홍콩)

총 재 : 영공 도성
명예총재 : 육조사방장 대원

【문의 연락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54-1 세계불교 문화교류연맹 TEL 053-767-8551 | FAX 053-765-4814 (010-3501-3005)

우리 모두의 뜻과 정성을 한데모아 땀도 함께! 보람도 함께!
사무총장 와룡 김대식 배상